

#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성적 표현의 한-중 번역 전략 — 이국화와 전고(典故)

호정이\* · 봉인영\*\*

## 목 차

1. 서론: 공손성과 체면
2. 번역 브리프: 에피텍스트(epitext)와 중국 출판법
3. 동성애: 이국화와 낯설게 하기
4. 비유적 성적 표현: 전고(典故)와 속어
5. 맺는말

## 국문초록

본고는 베누티의 이국화 전략을 토대로 황현진의 소설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에 재현된 성적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나아가 ‘낯설게 하기’ 및 전고(典故)를 활용하는 번역 전략이 성적 표현에 대한 민감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 번역 전략은 예로물의 출판을 금지하는 중국 출판법의 규제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ST의 명시적·암시적 의미를 모두 전달함으로써 번역 스크포스를 구현할 수 있다. 공손성 이론 및 중국어의 체면 개념이 얼굴(脸)과 체면(面子)으로 분기하는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이 전략이 인지적·수용적 측면에서 독자의 TT 이해력을 지연시켜, 궁극적으로 독자의 수치감을 완화하는 기능함을 밝힌다. 번역 스크포스를 구현하기 위하

\* 충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대학원 석사 수료, 통번역 전공(제1저자)

\*\* 충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여, 본고는 중국 출판법의 예로물 검열 규정 및 에피텍스트(epitext, 후텍스트)의 작가 인터뷰와 관련 기사 정보를 참작하여 번역 브리프를 구성한다. 이 논문은 이국화와 전고를 결합하는 번역 전략이 텍스트 주제를 구현하고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제고 하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보여준다.

**키워드:** 공손성, 중국 출판법, 에피텍스트, 이국화, 전고

## 1. 서론: 공손성과 체면

이 논문은 황현진 작가의 소설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의 성적 표현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국화와 낮설게 하기’ 및 ‘전고(典故)’ 활용의 번역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성적 표현은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 성관계 및 성과 관련된 신체 묘사를 포함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모두 포괄한다. 이 작품은 성장소설(Bildungsroman)로 사춘기 소년의 성장통을 묘사하며,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에서 고민하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표현하고 있다.<sup>1)</sup> 성 관련 묘사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감정적 독자 및 중국 출판계 상황을 고려하여 성적 표현의 적정 수위를 결정해야만 한다. 본고는 먼저 번역 스킴포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에피텍스트(epitext, 즉 후텍스트)에 기반한 번역 브리프(translation brief, 번역 의뢰서)를 설정하고 중국 출판법의 규제 사항을 참작한다. 화용론의 공손성(politeness) 이론에 입각하여 성적 표현의 한-중 번역 전략을 탐구하고, 체면(face) 개념이 중국어에서 ‘臉’과 ‘面子’의 두 층위로 구분되는 동시에 또 연결되는 지점을 살펴봄으로써, 독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sup>2)</sup> 또한 이국화 및 낮설게 하기 전략이 의미의 즉각적·직접적 전달을 지연함으로써 성적 주제 및 성적 표현에 대한 독자

1) 황현진,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서울: 문학동네, 2011. 황현진 작가와 문학동네 출판사는 이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학술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2) 주민욱, 『중국인의 체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6, 10쪽; 중국어의 체면 개념에 대해서는 이후 공손성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의 반감과 거부감을 경감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한국어 외래어 성적 표현을 중국어로 음차하고 전고(典故)가 있는 표현 및 영어 원어와 병기하여 번역하고, 이 방식이 문학적 상징성을 전달하고 문화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성적 표현의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는 프랑스어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젠더와 번역 전략의 관계를 규명하였다.<sup>3)</sup> 먼저 유미향·박정운·이영훈은 번역가의 성별과 젠더적 시각이 번역에 미치는 관계를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성(Le Deuxième sexe)』 사례로 살펴보았다. 여성 신체, 성행위와 동성애 묘사의 번역에 있어서 남성 번역가는 “은폐, 축소, 삭제,” 여성 번역가는 추가하거나 과장하는 번역 전략을 활용하였다고 밝혔다.<sup>4)</sup> 위 논문은 남성 번역가가 여성 신체를 묘사할 때 의학적 전문 용어를 음차(音借)한 방법을 언급하였다.<sup>5)</sup> 본 연구는 음차와 유사한 이국화 전략, 즉 ST의 외래어 유지를 낮설게 하기와 연결하여 성적 표현을 번역하고자 한다. 공손성(politeness) 이론에 기반하여 윤후남은 영화 <아메리칸 파이> 1, 2의 성적 표현 번역 전략으로 “상보적 번역, 대체 번역, 우회적 표현, 간접적 의미전달, 그리고 생략”을 제시하였다.<sup>6)</sup> 문화와 맥락의 차이 때문에 수위가 높거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체면 위협 상황을 야기한다. 윤후남은 위의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독자의 체면을 유지함으로써 용인성(acceptability)을 얻어야만 한다고 했다.<sup>7)</sup> 본고는 윤후남이 활용한 브라운과 레빈슨의 체면 개념을 참고하고, 나아가 중국어의 체면 개념인 ‘臉’과 ‘面子’의 차이 및 상관

3) 유미향·박정운·이영훈,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번역학 연구』 제13권 제5호, 2012, 143-173쪽; 외설 도서의 번역과 출판 및 그에 관한 판례를 다룬 논문으로 박지영,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채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1945-1979)」, 『여성문학연구』 제42권, 2017, 185-223쪽이 있다.

4) 유미향·박정운·이영훈,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168쪽.

5) 유미향·박정운·이영훈, *ibid.*, 148-149쪽.

6) 윤후남, 「영상번역과 공손성: <아메리칸 파이> 1, 2에 나타난 성적표현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8권, 2010, 173-189쪽.

7) 윤후남, *ibid.*, 183쪽.

성에 주목한다. 중국어의 체면 개념이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는 언어학에서 화용론적으로 이미 비교·분석하였으므로, 본고는 중국어에서 두 개념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여, 독자의 체면 위협 수위를 경감하는 번역 전략을 강구할 때 ‘臉’과 ‘面子’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미국 이민으로 이태원에 혼자 남게 된, 용화공고 3학년생 태만생의 독립생활을 그려 낸다. 또한 태만생이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만난 친구 태화, 오선, 유진 사이의 우정 및 성에 대한 자각과 방황을 표현하였다. 태만생은 이태원이라는 ‘이국적’ 구역의 짝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오선을 짝사랑하지만 유진과 사귀게 된다. 미국으로 갔다는 태만생 부모는 소식이 끊어졌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나이의 부부가 강릉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 작품은 사춘기 시기의 방황과 성적 정체성 혼란 과정을 생생하고 핏진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공손성 개념은 고프먼(Goffman)의 체면 개념, 즉 “상호작용을 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주장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로 구성된 이미지”에서 출발하였다.<sup>8)</sup> 레이코프(Lakoff), 리치(Leech) 및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은 공손성 이론을 체계화하고, 공손성을 화행의 일반적·보편적 원리로 제시하였다. 브라운과 레빈슨의 공손성 개념은, 인간은 합리성(rationality)과 체면(face)을 가진 ‘a Model Person’이고, MP는 방해받지 않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졌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sup>9)</sup>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와 화자는 자신과 상대의 체면을 헤아려 의사소통한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청자에게 명령·요청을 할 때 체면위협행위(face-threatening acts, FTA)가 발생할 수 있다. 체면은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과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의 두 측면으로 나뉜다. 소극적 체면은 행동의 자유와 부

8) 윤후남, 「영상번역과 공손성」, 175쪽; Penelope Brown,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61쪽.

9) Brown & Levinson, *Politeness*, 58쪽.

담으로부터의 자유로, 성인 화자의 행위가 다른 이에게 방해받지 않으려는 욕구이며, 적극적 체면은 “상호작용자들이 요구한 자기 이미지 또는 personality로, (이 자기 이미지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소극적 공손성(negative politeness)과 적극적 공손성(positive politeness)은 이 두 가지, 각각의 체면과 관련된 체면 위협을 다룬다.<sup>10)</sup> FTA의 상황 또는 FTA를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전략을 써서 화자-청자 간의 소극적/적극적 체면을 지키며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FTA의 정도는 사회적 거리와 파워 관계(즉 청자와 화자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 및 언어 부담의 정도라는 사회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sup>11)</sup> 본고는 소설 텍스트에서 발화하는 등장인물 사이의 FTA를 고려하고, 동시에 소설 서사와 인물 간의 대화, (내적) 독백이 최종 수용자인 중국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소설 서사 속 인물 간의 발화 방식이 서사 층위에서 FTA 상황과 연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번역 전략이 독자의 수용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을 천착하고자 한다. 아울러 번역 브리프에서 작가의 창작 의도와 중국의 출판법을 고려하여, 독자의 범주를 정하고 번역 스킴포스를 구현한다.

본고는 중국어에서 체면이 사회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두 가지 층위로 나뉘면서 또 동시에 연결되는 지점에 주목한다. 한국어에서 낯(얼굴)이 체면과 염치를 지칭하듯이 중국어에서 얼굴(臉) 역시 체면(面子)을 지칭하고, 볼 낮아 없게 되는 것(丟臉)은 체면의 상실과 다름없다. 주민옥은 후셴진(胡先縉)이 얼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여, 양자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음을 지적했다. “렌[臉]은 사회에서의 개인의 도덕 품격에 대한 확신, 그리고 멘[面]은 사회 성과에서 나타나는 명성으로 사회에서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승인”으로 정의되며, 전자는 한 개인의 도덕관념, 후자는 한 개인의 사회적 명성 및 명예와 관련된다.<sup>12)</sup> 로런스 양(Lawrence Hsin Yang)과 아서 클라인

10) Brown & Levinson, *Politeness*, 70-71쪽, 101-129쪽.

11) Brown & Levinson, *Politeness*, 68-74쪽.

12) 봉인영, 「딩링의 ‘위안부’ 서사, 타자화된 감정과 여성 임파워먼트」, 『중국어문학지』 제59집, 2017, 135-166쪽 재인용. 2차 자료의 직접 인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재서

먼(Arthur Kleinman)의 연구는 중국에서 특정 질병(조현병 또는 AIDS)에 걸린 개인에게 사회적으로 오명(stigma)이 부과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sup>13)</sup> 그들은 환자들이 ‘체면’을 잃고 오명을 입게 되는 과정에 중국의 상호성, 관시, 인정(人情) 문화 및 얼굴이 관여된다고 보았다. 양과 클라인먼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은 호의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호의를 베푸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는 일종의 부채가 성립되어 서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관시는 이러한 인정의 법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개인은 사회적 얼굴(面子), 즉 체면을 충분하게 구비해야 한다. 그들은 대인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얼굴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근의 연구는 도덕적 얼굴(moral face), 즉 얼굴(臉)이 상호성 및 사회적 교류와 일상의 경제학에 깊게 위치하고 도덕적 의무와 연결되어 구축되는 면에 집중하고 있다. 도덕적 얼굴은 한 그룹이 개인의 도덕적 명성 및 기록, 즉 사회에서 교환되는 의무와 선량한 인간으로서의 상태를 만족하는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얼굴(臉)은 지역 사회에서 한 개인의 도덕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도덕적 행동에 대한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금지 규정으로 이루어진다.<sup>14)</sup>

총괄하여, 중국어에서 面子(체면)는 사회적 얼굴로, 개인이 체면을 구비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에 사회적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다. 체면은 사회적 명성과 연관되고 감정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는 臉과도 연결된다. 臉은 도덕적 얼굴로 지역 공동체에서 상호성에 기반하여 개인에게

술함; 주민옥, 『중국인의 체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6, 10쪽; Hsien Chin Hu, “The Chinese Concepts of ‘Face,’” *American Anthropology* Vol. 46, no. 1 (1944): 45-46쪽.

13) Lawrence Hsin Yang and Arthur Kleinman, “Face and the Embodiment of Stigma in China: The Cases of Schizophrenia and AID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67, no. 3 (2008): 398-408쪽.

14) Ibid., 401쪽.

부과한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얼굴을 잃어버리는 도덕적 결함이 발생하고, 수치심을 가지게 된다.<sup>15)</sup> 텍스트에서 중국 출판 당국 및 중국 독자를 가장 당혹하게 하는 부분은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다.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독자의 사회적 얼굴, 체면을 위협하고 독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소설 주제 자체가 독자의 도덕적 얼굴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번역해야 한다. 이는 또한 브라운과 레빈슨이 말한 청자의 적극적 체면이 위협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화자가 청자의 적극적 체면에 무관심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하게 표현하고, 금기시하는 화제를 언급하는 것이다.<sup>16)</sup> 본고는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국화 전략 및 전고 활용 전략을 제안한다. 동성애와 관련된 표현(성 정체성, 신체 묘사 포함)을 할 때, 이국화 및 낮설게 하기 전략을 활용하여 성적 표현의 적나라함을 경감시켜 공손성을 확보한다.

## 2. 번역 브리프: 에피텍스트(epitext)와 중국 출판법

본고는 기능주의 번역 이론에 의거하여 번역 브리프를 구성하고, 스코포스 구현을 위하여 번역가가 번역을 발주하는 사례를 설정한다.<sup>17)</sup> 또한 박은숙·박은희의 연구를 참고하여 파라텍스트의 한 요소인, 작가 관련 에피텍스트(epitext, 후텍스트)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 브리프에 반영한다.<sup>18)</sup> 작가 관련 에피텍스트는 작가의 창작 의도와 주제 의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

15) Ibid., 401-402쪽.

16) Brown & Levinson, *Politeness*, 66-67쪽.

17) Christiane Nord 지음, 정연일·주진국 옮김, 『번역행위의 목적성-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50쪽.

18) 박은숙·박은희, 『『채식주의자』 번역을 통해 본 ‘번역가 브리프’ 기능 연구』, 『동서비교 문학저널』 제47호, 2019, 97-116쪽.

보이다. ST 분석에 기반한 번역 모델을 제시한 노르트(Nord)는 기능주의 번역 교육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 즉 ‘번역 의뢰서, ST 분석의 역할, 번역 문제의 기능적 위계’ 중에서 번역 의뢰서(translation commi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번역 의뢰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들(intended text functions), 발신자(sender)와 수용자(recipient), 텍스트 수용(text reception)의 시간과 공간, 매체(구어/문어), 동기(motive, ST는 왜 쓰였고, 왜 번역되는가).”<sup>19)</sup> 박지영은 번역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번역명세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 정부 기관에서 발주한 번역 케이스의 요건을 분석하였다. 번역명세서에는 “번역의 목적, 독자, 주제, 텍스트 타입, 거래 조건”이 기재되고, 또한 고객의 요구, 즉 특정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sup>20)</sup>

번역 스크포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고는 발주자가 의뢰하는 번역 브리프를 에피텍스트(epitext, 즉 후텍스트)와 중국 출판법을 참작하여 작성한다. 텍스트는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개의 관련 텍스트로 구성되었고, 주네트(Genette)는 이 부속 요소를 파라텍스트(paratext, 즉 겉텍스트)로 명명하였다.<sup>21)</sup> 박은숙·박윤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의 번역관을 추적하여 번역가 브리프를 구성하였다.<sup>22)</sup> 저자들은 주네트의 겉텍스트(paratext)는 주변텍스트(peritext, “저자명, 제목, 소제목, 헌사, 제사” 등) 및 후텍스트(epitext, 인터뷰 및 신문기사 등등)로 구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sup>23)</sup> 이 선행 연구는 스미스의 후텍스트, 즉 “인터뷰, 간담회, 포럼 및 [신문] 기사”에서 가독성을 중시하고 문화적 요소와 맥락을 중시하는 그의 번역

19) Jeremy Munday 지음, 정연일·남원준 옮김,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112쪽.

20) 박지영, 「번역명세서 분석을 통한 번역 의뢰인의 니즈 고찰 : 정부 기관의 번역명세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6, 11, 1-26쪽.

21) Gérard Genette,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Jane E. Lew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22) 박은숙·박윤희, *ibid.*, 97-116쪽.

23) 박은숙·박윤희, *ibid.*, 98, 100쪽.



관을 탐구하여 번역가 브리프를 구성하고, 번역가의 번역 전략이 번역 결과에 미친 영향 관계를 밝혔다.<sup>24)</sup> 본고는 위의 연구에 착안하여 작가 관련 인터뷰 및 신문 기사를, 번역 발주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번역 브리프를 구성하고자 한다.

황현진 작가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 캐릭터, 그의 유머 및 위트 있는 화법이다. 황 작가는 “원고지가 200매를 넘어가면서 태만생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sup>25)</sup> 황 작가는 “공고에 다녔던 남동생을 보면서 만생이란 인물을 떠올렸”으며, “만생이란 이름에는 ‘범박한 모든 생’이란 뜻이 있다”면서 “만생의 부모가 낯선 미국으로 떠났듯이 만생 역시 이태원이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비현실적인 모험을 하도록 설정했다”고 언급했다.<sup>26)</sup> 이 작품을 쓰기 바로 직전 1년은 황 작가의 계속된 투고에도 불구하고 등단에서 멀어졌던 시기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이 암담함을 벗어나고자 썼던 소설이라고 한다.<sup>27)</sup> 작품의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장통이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고, 그래도 삶은 희망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 브리프에서 이태원이라는 다문화 공간의 특수성을 살리고,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일탈과 모험을 잘 살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고는 중국 출판법을 참고하여, 법의 규제 사항을 번역 브리프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관권(范军)에 의하면 중국 출판법은 『헌법』에 의거하며, 출판, 영상제품, 인쇄업, 지도와 관련된 조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1월 1일 국무원에서 『출판법관리조례』를 반포한 바 있으며, 이 법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무법, 무질서 상황을 바로잡아 법치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24) 박은숙·박윤희, *ibid.*, 103, 105-112쪽.

25) 김용출,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작, 황현진 소설 ‘죽을만큼...’」,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10909002714/> 2022년 10월 15일 검색.

26) 한윤정, 「범박한 모든 인생들이여, 그래도 기죽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109162006375/> 2022년 10월 15일 검색.

27) 차유나, 「제 6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황현진(문예창작학·98학번) 씨」, 계명대신문, <http://www.gokmu.com/news/article.html?no=10730/> 2022년 10월 15일 검색.

제정된 것으로, 2002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다. 2002년 버전은 “중국 내에서 도서, 신문, 잡지 전자출판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중외합資경영기업, 중외 협력경영기업, 외국투자기업 설립의 허가에 관한 조항을 확대”하였다.<sup>28)</sup> 2016년에 다시 개정된 『조례』는 출판과 관련된 전체 기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중국에서의 출판은 국민과 사회주의를 섬기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덩샤오핑 사상을 가이드라인으로 삼도록 하며, 국제적인 문화교류도 권장하고 있다. 『조례』의 제3장은 출판물의 출판에 관한 것으로, 제25조는 출판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중에서 제4항과 제6, 7항은 성적 표현 및 성문화의 재현과 직결된 것이다.<sup>29)</sup>

- (4) 민족 혐오, 민족차별을 부추기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침해하는 내용
- (6)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7) 외설, 도박, 폭력을 퍼뜨리고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이 조항은 사회 질서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는 큰 틀로서 기능하므로, 동성애를 다룬 소설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조례』는 보다 구체적으로 「외설 및 에로 출판물의 판정에 관한 잠정적 규정」을 열거하였다.

- 제2조: 음란출판물은 전체적으로 음란 행위를 퍼뜨리는 것을 지칭하며, 다음 내용 중의 하나를 포함한다; 사람의 성욕을 불러일으키고, 일반인을 부패·타락시키며(시킬 수 있으며), 예술적 가치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출판물이다.<sup>30)</sup>

28) 范军, 「《出版管理条例》实施二十年的回顾与思考」, 『中国出版史研究』 2017년 第2期, 142-145쪽.

29) 「出版管理条例」, [https://gkml.samr.gov.cn/nsjg/bgt/202106/t20210615\\_330754.html/](https://gkml.samr.gov.cn/nsjg/bgt/202106/t20210615_330754.html/) 2023년 2월 26일 검색.

30) 「出版管理条例」, [https://gkml.samr.gov.cn/nsjg/bgt/202106/t20210615\\_330754.html/](https://gkml.samr.gov.cn/nsjg/bgt/202106/t20210615_330754.html/)

- (1) 외설적으로 성행위, 성교 및 그 심리와 느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2) 공공연하게 성적이고 음란한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
- (3) 외설적으로 성행위 기교를 묘사하거나 가르치는 것
- (4) 근친상간, 강간 또는 기타 성범죄의 수단, 과정 또는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것
- (5) 소년, 아동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6) 외설적으로 동성애의 성행위 또는 기타 성적 변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변태 행위와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 (7) 기타 일반인이 용인할 수 없는 성행위에 대한 외설적 묘사

위의 규정은 성행위, 성심리, 성적 이미지, 성행위의 과정이나 방법 등, 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묘사를 전부 규제하고 있다. 동성애도 예외가 아니며, 동성애에 대한 묘사는 변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설은 제재 및 내용에서 규제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세부 묘사의 수위를 반드시 조절하여 출판법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한다. 출판법을 준수하여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고는 번역 브리프에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시한다.

1. 의뢰자: 중국 도서 출판사
2. 번역 목적: 황현진 작가의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를 중국의 성인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한국과 중국 독자들이 한국 청소년의 성장통을 이해하고 성적 정체성에 대하여 열린 시각을 갖는 계기를 마련한다.
3. TT 출간 예정 시공간: 2023년 9월 10일에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출판 예정이다.
4. ST 생산과 수용의 동기: 중국 독자들이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

2023년 2월 26일 검색.

- 고민에 공감하여, 성 의식을 제고하고 성에 대한 개방감을 확대한다.
5. 최종 수신자: 중국의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6. TT의 의도된 기능: 문학성을 구현하고, 한국 문화의 특수성 및 성적 표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표현하여 전달함으로써, 중국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이끌어 낸다.
  7. 중국 출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국의 출판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번역자가 수위를 조절하여 번역할 수 있다. 성적으로 민감한 용어는 원문의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고, 외국어의 음차와 중국어 의미를 병기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8. 저자의 독특한 문체와 창작 특징인 유머와 위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하고, 이태원 공간의 특수성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9. 한·중 양국의 문화적 문맥의 차이를 감안하여 번역함으로써 의사소통 및 문화 간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한국 문화의 함축적 의미와 암시적 의미를 중국 독자들에게 최대한 살려서 전달한다. 문화적으로 대응되는 어휘로 번역하여, TT 번역 버전에서 작품의 주제 및 문학성을 최대한 구현한다.

본고는 에피텍스트에서 수집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정보와 중국 출판법에 의거하여 번역 브리프를 구성하였다. 성적 표현은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최대한 원문을 살려야만 하고, 동시에 중국 출판 시장 환경 및 독자 정서에 맞도록 표현되어야만 이 작품과 독자가 조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브리프를 텍스트를 분석하는 기본 틀로 삼아서 성적 표현의 한·중 번역 전략을 도출한다.

### 3. 동성애: 이국화와 낯설게 하기

동성애는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민감한 주제로, 두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온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 작품은 이태원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이태원은 실제 외국어와 외래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곳으로, 일상에서 언어적으로 다국어가 혼재한 곳이다. 서술자는 주인공 태화가 아르바이트하는 ‘짜퉁’ 가방 가게 사장의 이야기를 빌려 이태원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원래 이태원의 이는 다를 이(異), 태는 모양 태(態), 원은 동산 원(園)”이다(119). 사장은 이태원이 역사적으로 고아원 같은 곳으로 조선 시대부터 이민족과의 전쟁 및 교류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게 되어, 일제 식민지 시기와 미군 통치를 거치면서 이러한 특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았다(119-122). 이태원(梨泰院)은 원래 조치원처럼 조선 시대에 역원(驛院)이 있었던 곳으로, 李泰院 또는 異胎院으로도 표기하였다.<sup>31)</sup> 사장의 이태원에 대한 소개는 역사와 실재가 뒤섞인 서술이지만, 이태원 공간의 특수성과 그곳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특징, 즉 작가 문체를 최대한 살려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중국의 출판법 「외설 및 예로 출판물의 판정에 관한 잠정적 규정」 제2조 제6항은 동성애의 성행위나 성과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외설적으로 동성애의 성행위 또는 기타 성적 변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성적 변태 행위와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이 되면, 출판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동성애 및 이와 관련된 성적 표현을 번역할 때, 독자의 체면 및 출판법을 고려하여 적정 수위를 유지하여야 중국 시장에서 출간될 수 있다.

본고는 동성애를 표현할 때 먼저 등장인물의 성적 정체성은 이국화 전략으

31) 이태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96120&cid=46618&categoryId=46618/>  
2023년 4월 10일 검색.

로 번역하여 중국 독자들에게 의미가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지연시킨다. 출판법에서 동성애 관련 서술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표시하는 단어를 외래어 및 영어 원어로 표기하여 낯설게 하기 효과를 냄으로써, 중국 독자의 체면을 유지한다. 번역에서 이국화 개념은 독일의 신학자인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에서 유래한다. 그는 학술적·예술적 텍스트를 번역하는 사람을 번역자로 정의하고, 번역자는 “독자를 저자에게 접근”시키는 전략을 최우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2)</sup> 다시 말해, “독일인인 독자가 원문의 원어를 읽었을 때 받는 것과 동일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는 ‘외화(alienating)’ 방법으로 구현된다.<sup>33)</sup> 번역자는 ST의 이국성을 최대한 살려서 TT에 반영하여야 한다. 로런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이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베누티는 ST가 TT처럼 읽혀서 원어와 번역어의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 번역을 자국화(domestication)라고 하였다. 자국화는 영미 문화권에서 흔히 채택되는 전략이며, 이 경우 번역자는 비가시적이다(번역자의 불가시성, invisibility of the translator). 이에 비해, 이국화(foreignization)는 ST가 ST처럼 읽히는 것으로, 베누티는 식민주의 및 파워 관계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화에의 영향 문제 때문에 이국화를 선호한다.<sup>34)</sup> 베누티는 TT에 텍스트의 이국성(외래성)을 보전하여 독자를 원저자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국화 전략을 ‘저항성(resistancy)’이라고 지칭했다. “이국화 전략은 TL의 관점에서 유창하지 않거나(non-fluent) 낯설게 번역하는 것으로, 목표 문화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ST의 이국적 정체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강조함으로써 번역자의 존재를 ‘가시적(visible)’으로 드러내는 전략이다.<sup>35)</sup>” 베누티는 이국화를 ‘소수화(minoritizing)’ 번역이라고 지칭하고, 이국화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

32) Jeremy Munday 지음, 정연일·남원준 옮김,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34쪽.

33) Munday 지음, *ibid.*, 34쪽.

34) Munday 지음, *ibid.*, 205-209쪽.

35) Munday 지음, *ibid.*, 209쪽.

로, 이국화가 보존되는 가시적인 번역은 TT의 주류적인 지배 문화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자국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sup>36)</sup> 이국화와 자국화의 관계는 대립적이기보다는 “탐색적(heuristic) 개념”이다.<sup>37)</sup>

본고는 ST 이태원 공간의 특수성과 그 공간에서 사용되는 음차된 한국어 외래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중국의 독자에게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나아가 출판법의 규제와 검열을 피하는 유용한 전략이라고 본다. 또한 ST의 이국화를 유지하는 번역 전략은 자연스럽게 낯설게 하는 효과를 내므로, 이성 간의 교제 및 이성애적 정체성이 주류인 한국과 중국에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데 유효하다.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는 러시아 형식주의자, 쉬클로프스키가 고안한 개념으로 문학·예술 전반에 쓸 수 있는 기법을 지칭한다. 이 용어는 ‘이상하게 만들기(make strange)’를 의미한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으로써 독자들의 자동화된 지각 과정과 반응을 지연 및 복잡화하여,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감각적 충격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sup>38)</sup> 본고는 ST의 음차된 외래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음차하거나, ST의 성 관련 한국어 어휘를 TT에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중국 독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낯설게 하기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 베누티가 제시한 ST를 ST처럼 들리게 하는 이국화의 원래 정의와는 다르다. 그러나 베누티가 이국화를 ‘소수화(minoritizing)’라고 정의했듯이, 이태원과 성 담론의 재현이 곧 이질성을 가진 담론을 표현하는 소수화의 과정이다.<sup>39)</sup> 베누티의 논리에 따르면 ST의 주체가 주류 문화와 거리가 있으므로, 이 텍스트를 선택하여 번역하는 것 자체가 번역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국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sup>40)</sup> 하지만 이렇게 응용한 예가 부재하므로 여기서는 예시문을 최소화

36) Munday 지음, *ibid.*, 209쪽, 211쪽.

37) Munday 지음, *ibid.*, 211쪽.

38)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서울: 국학자료원, 2006, 376쪽.

39) Munday 지음, 『번역학 입문』, 209쪽.

40) Munday 지음, 『번역학 입문』, 209쪽.

하고,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전고 표현을 병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외국어를 중국어로 음차할 경우, 단어에 내포적 의미가 함축되어 의미가 표층에서 바로 이해되지 않는 과정 자체가 낯설게 하기 효과를 내므로,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번역 예시문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먼저 텍스트에서 태만생과 주변 인물들의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이와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원문의 외래어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국화 전략을 사용하고, 아울러 영어 원어를 병기하여 텍스트의 이질성을 강조한다. 태만생이 친구 태화의 성적 정체성을 속으로 확인하고, 성적인 상상을 하는 부분이다.

ST: 태화가 내 무릎을 잡고 흔들었다. 정말로 태화는 게이일지도 몰랐다.  
 [중략] 나와 태화가 절친이라는 관계로 묶여 함께 나눈 시간 동안 태화는 죽 나와 섹스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태화의 기다란 몸뚱이에 깔린 내 몸을 떠올리자마자 신물과 함께 구역질이 치밀어올랐다. (152쪽)

TT: 泰华抓住我的膝盖摇晃。说不定泰华真是搞基(gay)。 [중략] 我和泰华作为死党一起度过的时间里，泰华是不是一直想跟我发生关系呢？一想到被泰华修长的身躯压着的我的身体，我的胃里就阵阵泛酸，恶心想吐。

동성애는 양국 모두에서 사회적 금기로, 동성애의 성적 정체성을 언급하는 것은 청자, 즉 중국 독자의 사회적 체면(面子)을 거스르고 나아가 도덕적 얼굴(臉)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중국 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단어를 선택하여, 그 의미의 즉각적 전달을 지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게이라는 단어는 ‘(男)同性恋’, ‘同志’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ST 원문을 그대로 살려 중국어 ‘搞基’로 음역했다. 또한 ‘게이’는 현재 중국에서 영어 단어 그대로 ‘gay’로 기재하므로 병기하였다.<sup>41)</sup> ‘搞基’는 남성 사이의 동성애



를 지칭한다. ‘基友’는 동성애 성향의 남성, 즉 남성을 좋아하는 남성을 지칭한다. ‘搞基’에서 앞의 단어는 동사적으로 쓰였고, ‘基’는 ‘gay’의 음을 따른 것이다.<sup>42)</sup> 영어로만 제시될 경우에 이국성이 강조되지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 독자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전자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전략은 베이커의 “차용어나 설명을 덧붙인 차용어를 사용한 번역”에 해당한다.<sup>43)</sup> 베이커는 “문화상 특수한 항목, 현대적인 개념, 전문어”를 다룰 때 이 방식을 사용하고, 이는 단어 차원의 등가에 해당하며, 등가어가 없을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sup>44)</sup> 텍스트에서 ‘게이’라는 단어를 주로 써서, 성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외래어로 표기하여 이국화 전략을 유지하였다. 이 경우 이태원 공간 및 한국 사회에서 외래어가 모국어처럼 쓰이는 특징도 드러난다. 또한 동성애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국화된 단어보다 생소하게 느껴져 오히려 중국 독자의 체면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 언어적으로 중국 독자들에게 동성애를 바라보는 약간의 거리를 만들어, ‘동성애’ 자체를 낮설게 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베누티는 이국화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부분은 자국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정보는 태화가 게이일 수도 있다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추측이고, 성적 상상을 이를 뒷받침하는 부가적인 정보이다. 자국화와 이국화의 탐색적 개념 관계에 근거하여, 뒤의 ‘섹스’는 그대로 음역하는 이국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에 남성 및 여성 모두에게 쓸 수 있는 중립적 표현을 썼다. ‘发生关系’는 성적 관계를 표현하지만, 출판법에 저촉되지 않고 중국 독자의 체면을 불편하게 하지도 않는다. 이 표현은 동성애의 화제 민감도 및 독자의 거부감을 줄이는

41) 男同性恋. <https://iask.sina.com.cn/b/1GYIekBGe4C9.html/> 2023년 4월 16일 검색.

42) 搞基. <https://baike.baidu.com/item/%E6%90%9E%E5%9F%BA/10850028/> 2023년 4월 16일 검색.

43) Mona Baker 지음, 곽은주 옮김, 『말바꾸기: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2009, 47쪽.

44) Baker, 『말바꾸기』, 47-49쪽.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이국화와 자국화를 적절하게 섞어서 게이 정체성을 강조하여, 독자가 인물 정체성에 대하여 몰입하는 효과를 낸다.

다음의 텍스트에서는 게이와 함께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만생은 태화의 성 정체성 혼란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며 그에게 “태화야, 넌 절대로 게이가 아닐 거야”(152쪽)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ST: 태화에게 한 말이라기보단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아무리 아메리카 국적을 둔 부모를 두었다 하더라도 게이 친구를 아무런 편견이나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기엔 나라는 인간의 서구화 발달지수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다. 레즈비언 친구라면 또 모를까. (153쪽)

TT: 比起说给泰华听, 更像是给我自己的安慰。就算父母拥有阿美瑞卡国籍, 但要毫无偏见或担忧地接受朋友搞基(gay), 我个人的西方化开放程度远远不足。要是蕾丝边(lesbian)朋友, 也许还能.....

레즈비언은 ‘女(性)同性恋’나 ‘女同’으로 번역할 수 있다. ‘拉拉’, ‘拉子’ 및 ‘闺中密友’로도 쓰이고, 후자는 줄여서 ‘闺密’로도 쓴다. ‘闺密’는 문맥에 따라서 아주 친한 여성 친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중국 젊은이들은 ‘姬圈’이라고도 하고, ‘Les’는 ‘姬圈’보다 범위가 더 넓다. 여성 간 동성연애의 성 역할에서 탑에 있는 사람을 ‘Tp’(Top), 아래에 있는 사람을 ‘P’라고 부른다.<sup>45)</sup> 여기서는 중국어 음역 단어를 써서 한국어 음역과 등가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음역인 ‘Les’ 대신에 영어 원문 ‘lesbian’을 병기하여, 외국어처럼 표기하였다.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외래어로 음차 표기하여, 금기시되는 단어의 출판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독자의 적극적인 체면을 크게 거스르거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게 된다.

이 작품을 중국 독자에게 소개할 때 신체 묘사에서도 TT 이국화(소수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외설성은 중국 당국이 보기에는 성행위의

45) 姬圈. <https://www.0771td.com/p/127963.html/> 2023년 4월 15일 검색.

구체적 묘사보다 동성애 주제 자체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조례』 제2조 제6항은 “외설적으로 동성애의 성행위 또는 기타 성적 변태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변태 행위와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상황에서 생식기 및 성행위를 동시에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에, 제6항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독자의 시각에서 특히 ST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직접 대할 경우 거부감이 클 수 있으며, 민감한 독자는 언어가 주는 적나라함 때문에 내적으로 난감해할 수 있다. 다음의 대화는 만생이 친구 태화를 위해 콘돔을 사 주는 장면에서 그의 게이 정체성을 알고 난 이후에 나온다. 대화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콘돔을 보면서 물어본다.

ST: 이걸 내 엉덩이를 위한 거야. 아니면 내 자지를 위한 거야? (221쪽)

TT: “这是为了我的屁股(hip)用的, 还是给我的披呢斯(penis)用的?”

ST: 너의 엉덩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너의 자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네가 먹을 보지들과 쫓, 그 모두를 위한 것이지. (221쪽)

TT: “这虽然既是为了你的屁股(hip), 也是为了你的披呢斯(penis), 但是也是为了以后和你配合的铺嘶谗(pussy)和你的拷克(cock)。”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를 ‘屁股’, ‘阴茎’, ‘阴门’, ‘屌’로 번역할 수 있지만, 태화의 게이 정체성과 동성애 성행위가 부각될 위험이 있다. 이에 생식기를 외국어로 전달하여 낯설게 하는 효과를 내면서, ‘자지’와 ‘쫓’을 구별하고, 영어 단어도 다르게 선택하여 음차어와 영어를 병기하였다. ‘쫓’은 성기를 비속하게 일컫는 단어로, ‘dick’을 사용할 경우 불쾌감이 드러날 수 있어, ‘cock’으로 대체하여 영어 슬랭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cock’의 원래 의미는 수탉이지만, 음경 및 남성 간의 성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영어 단어 자체가 중의적이므로 의미가 즉각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지연하여, 낯설게 하기 효과를 유발한다. 외국어의 생소함에 더하여, 단어 자체의 표층적 의미인

‘수탉’과 그 이미지를 한번 더 되새겨야 함축적 의미가 파악된다. 지각의 자동적 인식이 지체됨에 따라 서사 대상에 대한 이해 및 반응 시간이 잇따라 지연된다. 가독성은 저하되지만, 출판법의 규제를 피함과 동시에 독자의 민망함도 줄어든다. 또한 서사 대상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며, 간접적 소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거리감은 독자의 내적 수치심을 건드리지 않고 체면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공손성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태화와 만생은 짝퉁 가방가게에서 외국인을 상대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 만생은 일본 여성 관광객의 내면 심리를 추정하면서 성을 섹스로 표현하고, 그 여성의 심리를 ‘오르가슴’이라는 단어에 비유하였다.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음역하지 않고, ‘性高潮’로 성적 쾌감의 절정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국화 전략을 유지한 버전을 먼저 살펴본 후에 출판법을 준수하는 버전을 제시한다.

ST: 애초부터 미카 상은 짝퉁 가방보다 태화와의 섹스에 더 구미가 당겼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계단을 올라올 때부터 그녀의 얼굴은 잔뜩 달아올라 있었으니까. 이미 오르가슴에 도달한 여자처럼. (125쪽)

TT: [也许]从一开始,比起山寨包,和泰华赛克斯(sex)更让美香女士吊胃口。因为从上楼梯开始,她就已经满脸绯红了。就像已经哦嘎嘣木(orgasm)了一样。46)

이 버전은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외래어의 영어 원어 그대로 음차하여 번역하였다. 전자는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 ‘赛克斯’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서 참고하였고, 후자는 직접 음차하였다. 중국어 음차어와 영어가 혼용되어 있어, 영어 단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더라도 독자가 이중언어 사용자가 아니라면, 정보 수용에 있어서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 영어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독자의 경우에는 사전을 찾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이 시간차는

46) 赛克斯. [https://www.sohu.com/a/370081471\\_347979/](https://www.sohu.com/a/370081471_347979/) 2023년 6월 22일 검색.

더욱 커진다. 이 시간차로 인하여, 독자가 민감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즉각성과 반응성의 정도가 감소되어 내적인 민망함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sex’를 ‘一起睡覺’로, 뒤의 얼굴 달아오름과 오르가슴을 ‘她的脸蛋就已经发烫变得极其红了。就像已经高潮了一样.’으로 풀어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의미가 독자에게 즉각 전달되어, 성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외래어를 쓴 버전이 독자의 체면을 덜 위협한다고 판단된다.

#### 4. 비유적 성적 표현: 전고(典故)와 속어

이 작품은 트랜스 젠더 남성과 게이 남성 사이의 성적 표현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와 관련되므로, 중국 출판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이다. 중국 정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인 전고(典故) 및 그에 함축된 문화 상징을 활용하여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이국화 전략이 중국 독자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생성하여 독자의 체면을 유지하였듯이, 전고 또한 중국 문화에 대한 중국 독자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인 이해를 지연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이해 및 반응하는 데서 나아가 문장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접수하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성적 묘사에 대한 독자의 민감도를 줄일 수 있다. 전고는 그 자체의 상징성으로 표층에서 성적 표현의 노골성을 완화하지만, 심층에서 성적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하여 본질적으로는 텍스트에서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화하게 된다. 이 경우에 ST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심층 구조에서 더 문학적으로 전달되는 효과를 창출한다. ST의 성적 표현을 TT 전고로 번역하는 것을 자국화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본고는 전고와 함께 ST 외래어를 TT 외래어와 함께 기재하여, 이국화와 자국화를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ST의 이국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TT 자국화의 함축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검열을

회피하지만 문학성을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이다.

다음 문장은 주인공 만생이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의문시하는 과정과 친구 태화의 성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트랜스 젠더 미미 형님이 짝퉁 가방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자, 만생은 태화에게 키스를 해야 가방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한다. 미미 형님은 태화에게 실제로 키스했고, 만생은 키스 과정 및 태화의 신체 변화 반응을 살피면서, 그의 게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ST: 나는 얼른 태화의 사타구니를 살폈다. 내 물건이야 볼 것도 없이 이  
미 직립해버린 뒤였다. 태화의 청바지 지퍼 속의 상황은 오리무중,  
오직 태화만이 알 일이었다. (187쪽)

TT: 我赶紧瞧向泰华的腹股沟。我的那个都不用看，已经直立起来了。泰华  
牛仔褲拉鏈里的情况五里雾中，只有泰华自己知道。

앞 문장의 성적 표현은 축자적으로 번역하고, 뒤의 문장을 동형동의어로 번역하였다. 오리무는 『후한서·장해전』(後漢書·張楷傳)의 “장해의 자는 공초(公超)로, 본래 도술을 좋아하여 [맑은 날에도] ‘오리의 운무’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데서 유래하고, 이후 황홀한 지경을 일컫는다.<sup>47)</sup> 또한 이 ‘오리무중’은 ‘如墮烟海’(안개 자욱한 바다에 빠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도 된다.<sup>48)</sup> 반 홀릭에 의하면, 중국 문화에서는 이성 간의 성행위가 완성되는 것을 ‘비가 내린 후, 구름이 흩어진다’고 하고, 남녀 사이의 육체적 접촉인 ‘운우’(雲雨)로 나타낸다. 남성의 동성연애는 ‘翻雲覆雨’(뒤집힌 구름과 비)로 지칭하였다. 안개는 기가 모여있는 것이다.<sup>49)</sup> 즉 수증기가 대기 중에 떠 있는 것

47)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第四卷, 上海: 汉语大词典出版社, 1990, 276쪽.

48) ‘如墮烟海’, 이 말은 刘义庆의 『世说新语·赏誉』에 나온 말로, 은호(殷浩)의 연사가 홀릭하여 운무에 빠진 것 같다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요령을 모르거나 방향을 알 수 없음을 지칭한다.

<https://shishuoxinyu.5000yan.com/shangyu/508.html/> 2023년 4월 20일 검색.

49) R. H. 반 홀릭 지음, 장원철 옮김, 『중국 성풍속사』, 서울: 까치, 1993, 55쪽.

으로, 이 문장을 동형동의어로 번역할 경우 ‘태화의 상황을 알 수 없다’는 표층적 의미와 함께, ‘생명의 기가 자욱하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전고를 활용할 경우,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하여 출판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체면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적 상상력도 오히려 더 풍부해진다. 그 결과, 동성애에 대해 열린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주제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전고를 활용하는 번역 전략은 동성애를 암시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만생이 아르바이트 가게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태원역에 하차한 후에 목도한 광경을 서술하였다. 이 부분은 태화의 성적 정체성을 암시하고 이태원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만생은 지나가는 무슬림과 중국 남성 2명을 보면서, 이 중국 남성들이 사귀는 것 같다고 속으로 의심한다.

ST: 드디어 이태원역에 도착했다. [.....] 그 옆으로 배낭을 멘 중국인 여행객 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누며 지나갔다. 두 남자 모두 파란 폴로셔츠를 바지 속에 단정히 집어넣은 차림새였다. 사귀는 건가. 나는 중국 남자들 곁으로 붙어서서 그들의 행동을 주시했다.  
(103쪽)

TT: 终于到梨泰院站了。[.....] 旁边背着背包的两名中国游客说着我听不懂的话走了过去。两个男人都把蓝色马球衫端庄地塞进裤子里。俩人是断袖吗, 我贴近这两个中国男人, 注视着他们俩的行动。

위 문장에서 ‘사귀는 건가’는 가장 중요한 정보로 ‘俩人是一队吗’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축자적 번역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동성애 커플인지 궁금해하는 뉘앙스가 가려진다. 또한 앞 문장 ‘두 남자 모두 파란 폴로셔츠를 바지 속에 단정히 집어넣은 차림새였다’에서 옷 색깔, 옷을 입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게이 커플인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 역사에서 옷과 관련되어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전고를 활용할 수 있다. ‘斷袖’는 ‘옷소매를 자르다’라는 뜻으로, ‘斷褻’로도 표기하며 남성 동성연애를 지칭한다. 한(漢) 나라 애제(哀帝)는 남성 신하인 동현(董賢)을 사랑하였고, 특히 그의 외모를 사랑하였다. 애제는 그를 부마도위시중(駙馬都尉侍中)으로 임명할 정도로 아꼈다. 하루는 낮에 들어서 자는 날에 동현이 애제의 소매를 누르고 자고 있었다. 애제가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는 동현이 더 자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의 옷을 스스로 자르고 일어났다고 한다.<sup>50)</sup> 여기서 전고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동성애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암시하여 성적 정체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한다. 중국 독자들도 전고의 의미를 이해하여 중국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력과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결과 출판법의 규제를 피하고, 동성애와 관련된 어휘를 확장하여 상징적으로 동성애를 표현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다음의 텍스트에서는 여성 생식기를 ‘버자이너’로 표기하였지만, 이를 음역한 중국어 외래어는 중국 현지에서 쓰이지 않고 있다. 이국화 전략을 써서 영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영어와 전고를 동시에 제시하여, 신체와 관련된 성적 표현의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은 외래어를 영어 원어 및 전고(典故)가 있는 중국어와 병기한 예시이다.

ST: 일은 서툰게 끝났다. 유진의 버자이너는 딱딱했다. 아무리 찢러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98쪽)

TT: (性事)草草结束了。有真的窝塞呐(vagina, 金沟)很紧。怎么顶也不好进。

이 버전은 영어 음차어, 영어 원어와 전고(典故)가 있는 음문의 비유어를 병기하여 가독성과 이해력을 제고한다. ‘金沟’는 <진서왕제전>《晋书·王济

50)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第六卷, 上海: 汉语大词典出版社, 1990, 1091쪽.



传》에 나오는 말로, 서진(西晉)의 왕인 제(濟)가 수도 낙양(洛陽)에 땅을 사서 활터(射場)로 사용하고, 돈을 담장 높이만큼 쌓은 것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金沟’라고 불렀다.<sup>51)</sup> 金沟는 여성의 음문을 지칭한다. 이 경우에 영어의 이국화와 전고의 비유로, 독자를 이중으로 낯설게 하는 효과를 낸다. 성 관련 신체 묘사는 성행위가 미숙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앞 문장에서 성행위가 실패했음을 언급하고, 뒤 문장에서 외래어의 영어 원어 및 전고를 병기하여 낯설게 하기 효과가 배가되었다. 또한 성행위 과정에 대한 결과와 원인이 반대 순서로 묘사되어, 독자에게는 성적 묘사에 대한 민감도 및 그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된다. 낯설게 느껴지는 성 관련 신체 단어와 미리 제시된 결말에 독자의 민망함은 해소되고, 나아가 출판법의 규제와 검열을 피할 수 있다.

ST에서 성적 관계를 속어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TT에서도 속어를 활용한다. 이 경우 성적 표현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나타냄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낸다. 다음은 ST의 속어를 TT 속어로 번역한 예시이다.

ST: 근데 만생아, 넌 유진이를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같이 떡쳤잖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152쪽)

TT: “对了，满生，你那么讨厌有真，不是还一起啪啪啪了吗。那个要怎么解释呢？”

‘떡치다’는 ‘떡을 떡메로 치다’라는 의미로, 성적 관계를 일컫는다. 중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부재하지만, 떡을 치는 소리와 관련된 ‘啪啪啪’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이 표현은 인터넷에서 유래한 말로 남녀의 성관계를 예들러서 표현한다.<sup>52)</sup> 또한 대만에서 사용하는 속어 ‘嘿咻’로도 번역할 수 있

51) 金沟. <https://baike.so.com/doc/5197115-5428783.html>/ 2023년 4월 15일 검색.

『晋书·王济传』은 『晋书·列传十二』의 일부로, 당나라 방현령(房玄龄)이 편집한 전기이다. <https://baike.so.com/doc/28595875-30052752.html>/ 2023년 4월 15일 검색.

다.<sup>53)</sup> 이 말은 인터넷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뜻에 입 구(口) 글자가 더해져, 성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속어를 속어로 번역할 경우, 문학적 상징성과 소리 이미지가 더해져 독자의 성적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에 검열을 피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텍스트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전달하여 번역 스킴포스를 구현할 수 있다.

## 5. 맺는말

본고는 황현진 작가의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에 나타난 성적 표현을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국화 및 전고 활용의 번역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국 독자의 체면을 살리고 중국 출판법을 준수하는 데 유효하다. 나아가 검열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동시에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심층 구조에서 문학적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번역 전략임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본고는 공손성 이론을 활용하여, 동성에 주제가 중국 독자의 적극적 체면 위협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였다. 특히 중국어의 체면은 사회적 체면과 도덕적 체면이 결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국 독자의 두 가지 체면을 살리는 방법으로 번역 전략을 탐색하였다. 중국어에서 번역 스킴포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번역 브리프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번역 전에 번역가가 번역 브리프를 미리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피텍스트(후텍스트), 즉 작가 인터뷰와 신문 기사의 논평을 참고하여

52) 啾啾啾.

[https://www.baik.com/wikiid/5958944595186321213?prd=result\\_list&view\\_id=mda0rtsxna800/](https://www.baik.com/wikiid/5958944595186321213?prd=result_list&view_id=mda0rtsxna800/) 2023년 4월 15일 검색.

53) 嘿咻. <https://guoxue.baik.com/query/view?type=phrase&title=%E5%98%BF%E5%92%BB&src=onebox/>

[https://www.baik.com/wikiid/943928582183700230?view\\_id=3lkexrdzga2000/](https://www.baik.com/wikiid/943928582183700230?view_id=3lkexrdzga2000/) 2023년 4월 15일 검색.

ST의 창작 의도와 주제, 텍스트의 기능 및 번역의 목적을 명시화함으로써, 번역의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성적으로 민감한 주제와 표현은 중국 당국의 규제 대상이므로, 중국 출판법에서 성과 관련된 출판물을 규제하는 조항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외설 및 예로 출판물의 판정에 관한 잠정적 규정」의 경우, 외설적으로 동성애와 변태적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기하고 있으므로, 이 규제 내용을 준수해야만 출판이 허가된다.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암시하는 문장은 ST의 미 및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수 정보이므로 이국화 및 전고를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ST 음차 외래어와 영어를 병기하여, 이국화와 낯설게 하기를 활용하였다. 동성애를 지칭하는 자국화된 어휘와 다르게, 이국화 전략으로 번역된 단어는 독자가 동성애적 성 정체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및 수용적 측면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유발한다. 따라서 자국화된 단어에 비하여 독자의 사회적 체면과 도덕적 체면을 덜 상하게 한다. 동성애와 관련된 신체 묘사의 경우에도 외래어를 영어 원어와 음차로만 제시하여, 독자와 서사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함으로써, 성적 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의 민망함을 경감하였다. 이는 ST의 이국화를 TT로 확대한 것으로, ST 이국화와 전고를 병기하여 번역가 존재의 가시성 및 문학적 함축성을 동시에 제고하였다. 따라서 이국화 전략은 독자의 내적 수치심을 건드리지 않고 동성애 주제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당혹감과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체면을 유지·보존할 수 있다. 비유적 성적 표현의 경우, 텍스트의 맥락에서 함축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고 및 외래어(영어 원어 제시 포함)를 병기하여 번역하였다. 중국 독자에게 전고의 비유에 함축된 심층적 상징 의미를 소개하여, 문학 텍스트 본연의 상상력과 예술성을 구현하였다. 이국화와 전고의 전략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중국 당국의 검열망을 피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독자가 텍스트의 심층 의미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문학성을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성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다른 문학 텍스트를 번역할 때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의 복잡성과 간극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하여 보다 열린 시각과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參考文獻

- 김용출,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작, 황현진 소설 ‘죽을만큼…」,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10909002714/>.
- 모나 베이커(Mona Baker) 지음, 곽은주 옮김, 『말 바꾸기: 번역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2009.
- 박은숙·박윤희, 「『채식주의자』 번역을 통해 본 ‘번역가 브리프’ 기능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제47호, 2019.
- 박지영, 「번역명세서 분석을 통한 번역 의뢰인의 니즈 고찰 : 정부 기관의 번역 명세서를 중심으로」 제20권 제2호, 2016.
- 박지영, 「음란(외설) 시비의 이면: 『채털리부인의 연인』(판례)의 번역과 젠더/섹슈얼리티/계급 정치(1945-1979)」, 『여성문학연구』 제42권, 2017.
- R. H. 반 홀릭 지음, 장원철 옮김, 『중국 성풍속사』, 서울: 까치, 1993.
- 봉인영, 「딩링의 ‘위안부’ 서사, 타자화된 감정과 여성 임파워먼트」, 『중국어문학지』 제59집, 2017.
- 유미향·박정운·이영훈, 「번역가의 젠더와 성적 표현의 번역」, 『번역학 연구』 제13권 제5호, 2012.
- 윤후남, 「영상번역과 공손성: <아메리칸 파이> 1, 2에 나타난 성적표현 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8권, 2010.
- 제레미 먼데이 (Jeremy Munday) 지음, 정연일·남원준 옮김,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2006.
- 주민욱, 『중국인의 체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차유나, 「제 6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황현진(문예창작학·98학번) 씨」, 계명대신문, <http://www.gokmu.com/news/article.html?no=10730/>.
- 크리스티안네 노르트(Christiane Nord) 지음, 정연일·주진국 옮김, 『번역행위의 목적성-기능주의 번역론의 관점』,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한윤정, 「범박한 모든 인생들이여, 그래도 기죽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109162006375/>.

황현진,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서울: 문학동네, 2011.

范军, 「《出版管理条例》实施二十年的回顾与思考」, 『中国出版史研究』 第2期, 2017.

罗竹风 主编, 『汉语大词典』, 上海: 汉语大词典出版社, 1990.

「出版管理条例」, [https://gkml.samr.gov.cn/nsjg/bgt/202106/t20210615\\_330754.html](https://gkml.samr.gov.cn/nsjg/bgt/202106/t20210615_330754.html).

Brown, Penelope, and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Hu, Hsien Chin. "The Chinese Concepts of 'Face'," *American Anthropology* 46, no. 1, 1944.

Genette, Gérard.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lated by Jane E. Lew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Yang, Lawrence Hsin, and Arthur Kleinman. "Face and the Embodiment of Stigma in China: The Cases of Schizophrenia and AIDS." *Social Science & Medicine* 67, no. 3, 2008.

## Abstract

### Strategies for Translating Korean Sexual Expressions from *The Pain Didn't Kill Me* into Chinese: Foreignization and *Diangu*

Hu Jingyi · Bong, InYoung

By analyzing a case study that translates sexual terms in Hwang Hyunjin's novel, *The Pain Didn't Kill Me*, from Korean into Chinese, this paper applies Venuti's foreignization to translation, together with defamiliarization and *diangu* (classical allusions). These three strategies are a viable method of conveying both the explicit and implicit meanings of the source text so as to circumvent the strict censorship of publications on sexuality and to achieve the *skopos* of translation. Drawing on the theory of politeness and the Chinese concept of face, *mianzi* and *lian*, respective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rategies could also mitigate the shame arising from face-threatening acts as there is a delay in Chinese readers'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translated Chinese sentences at the cognitive and receptive levels.

Addressing the criteria for banning sexually graphic materials, as defined in the Chinese Publication Laws,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Chinese laws regulate the circulation of sexually explicit works, and how these laws could be reflected in writing a translation brief. Furthermore, based on *epitextu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text, including newspaper articles and interviews of Hwang Hyunjin, this paper shows that creating a translation brief (a translation commission) while accommodating the legal factors affecting publication is a means of endorsing the quality of a transl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combining foreignization with *diangu* further evokes readers' literary imagination and thus significantly reifies the theme of the text. Readers would then be able to receive the text figuratively while cultivating a sense of openness to other cultures and peoples.

**Key words** : politeness, Chinese Publication Laws, *epitext*, foreignization,  
Chinese classical allusions

투 고 일: 2023. 7. 10. / 심 사 일: 2023. 7. 15.~ 2023. 8. 15. / 게재확정일: 2023. 8. 20.